

## 2-36. 장미에서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의 발생 및 가해 양상

박종대, 김선곤, 김도익<sup>1</sup>

전남농업기술원

꽃노랑총채벌레는 1993년 제주도의 감귤원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지금은 시설재배의 화훼류와 채소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999~2000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미를 중심으로 꽃노랑총채벌레의 발생 및 피해에 관해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꽃노랑총채벌레는 시설재배의 무방제 포장에서 성충이 4월하순부터 트랩에 포획되기 시작하였으며 5월상순부터 서서히 밀도가 증가하고 6월중순부터 7월상순까지는 밀도가 높았고 7월하순부터는 고온으로 인하여 낮은 밀도가 유지되다가 8월상순부터 다시 밀도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9월중하순부터는 저온으로 인하여 다시 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월동기간 동안에는 충의 밀도가 낮았지만 황색끈끈이 트랩에 유인된 충은 계속 관찰되었다. 관행방제포장에서는 무방제 포장에 비하여 충의 발생량이 '99년에는 40.8%, 2000년에는 37.8%수준이었으며 관행방제 포장의 경우 연간 농약 살포횟수는 50회정도로 살충제가 30~40회, 살균제가 10~20회로 살충제의 살포횟수가 많았으며 그중 꽃노랑총채벌레를 대상으로한 방제는 11회이었다. 몇가지 장미품종에 따른 꽃노랑총채벌레와 애꽃노린재의 밀도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꽃노랑총채벌레가 꽃에 침입하는 시기는 화판이 벌어져 꽃잎이 보이기 시작한 직후이며 일단 꽃에 침입한 성충은 꽃이 개화함에 따라 꽃잎 속에서 번식하면서 밀도가 증가한다. 꽃당 꽃노랑총채벌레의 밀도는 노지재배에 비하여 시설재배의 경우 3배 가량 높았다.